

도민 셋 중 한명 '중장년'... 고령화 가속

제주도 주민등록인구 올해 6월말 기준 '66만9771명' 전체 33% 이상 '40~50대'... 이어 30대>20대>10대 순 연령별로 1971·1969년생 1·2위... 'X세대'가 주 이뤄

제주도의 주민등록 인구가 67만명을 눈앞에 둔 가운데 40~50대가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2636명으로, 이중 남자는 2586만 8406명, 여자는 2597만 423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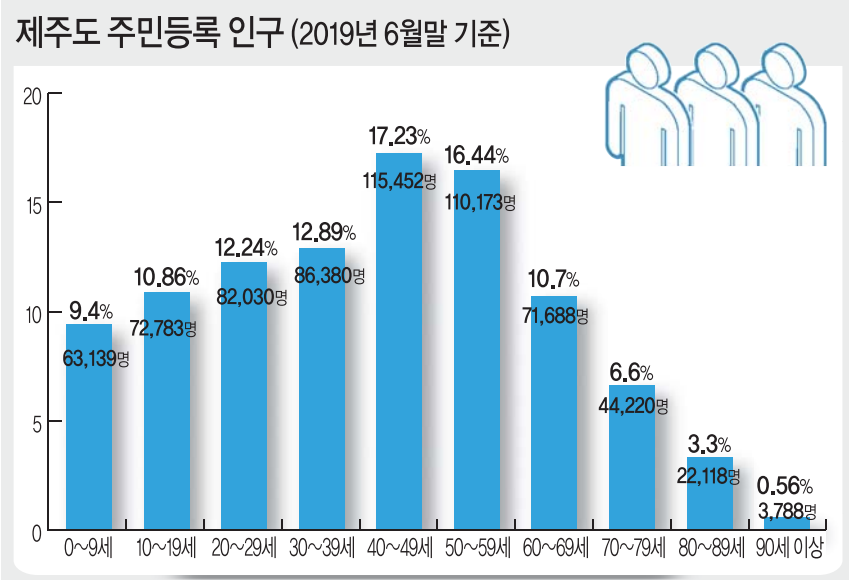
제주도인 경우 66만9771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33만6944명, 여자는 33만2827명으로 남자가 411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는 제주도 20만7262, 서귀포시 8만3359세대 등 29만621세대로 파악됐다. 제주도 인구는 1992년 50만5784명에서 16만 3987명 증가하면서 1년 평균 6073명

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11만3452명(17.23%)이었으며, 50대가 11만173명(16.4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30대 8만6380명(12.89%), 20대 8만2030명(12.24%), 10대 7만 2783명(10.86%), 60대 7만1688명(10.70%) 순이었다. 0세부터 9세가 지는 6만3139명(9.4%)이었으며, 70대 4만4220명(6.60%), 80대 2만 2118명(3.3%), 90대 3525명, 100세 이상은 263명이었다.

이에 따라 40~50대가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하면서 도민 3명 중 1명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는 1971년생(돼지띠)으로 1만3000명에 육박하는 1만2922명(남 6766



명, 여 6156명)이었다. 다음으로 1969년생(닭띠)이 1만2774명, 1972년생(쥐띠) 1만2516명, 1973년생(소띠) 1만2433명, 1970년생(개띠) 1만2240명, 1974년생(범띠) 1만 2169명으로 1만2000명을 넘는 연령으로 구분됐다. 반면 베이비붐세대는 대부분 1만명선에서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현재 제주도의 인구 역시 베이비붐 뒤를 이어 X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50대 인구가 33%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제주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시행을”

신문협회, 정부에 정책제안 “시행 무리 없다” 자료 입증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차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진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지국은 국제정 홈페이지 시스

템이나 신문 분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의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신문업계의 주장이 자료로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지국이나 독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업이 국제정서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현영준기자

저소득 청년 자립 맞춤 지원 제주시, 자활사업단 운영

제주시와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신규 사업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청자날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39세의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저소득 청년층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서·심리적 교육 ▷사회적응 교육 ▷자활기업·사업단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서는 28개 자활근로사업단과 10개 자활기업에서 총 378명이 참여해 간병, 청소, 세탁, 집수리, 운동화빨래방, 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비 9989만7000원이 지원된다”며 “향후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자립·자활의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문턱 낮춘 ‘농어촌민박 인증제’ 통할까

서귀포시, 이달부터 인증점수 100→ 85점으로 완화 CCTV 설치비도 절반 지원... 안전인증 확대 ‘관심’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인증받은 곳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이달부터 까다로운 인증조건을 일부 완화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귀포시는 7월부터 달라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을 희망하는 민박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5개 분야 20개 지정항목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해 100점을 받아야 가능했던 것을 85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서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자료 하고, 연 1회 방문 신청도 연중 수시 신청으로 변경됐다.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 관광진흥기금(운영자금 3000만원까지 저리 용자)과 농어촌진흥기금(개·보수자금 2000만원까지 저리 용자)도 지원된다.

안전인증 평가기준 점수를 완화한 것은 까다로운 평가기준으로 전체 민박의 1%에도 못미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박의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서

다. 서귀포시의 경우 5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은 1496곳인데, 지난해 안전인증제를 신청해 적합평정을 받은 민박은 8곳 뿐이다.

시는 또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방문 CC(폐쇄회로)TV 설치가 필수적인데, 시설투자비 부담으로 기피하는 업소 독려 차원에서 올해부터 CCTV 설치비의 50%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63개 업체가 CCTV 설치를 신청해 단계별로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협의를 거쳐 7월부터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운영·개보수 자금도 융자지원하게 된다”며 “최근에는 민박사업자들의 안전인증 관련 문의도 이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 망고 수확 3일 제주시 오동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온실에서 연구원이 아열대 과수작물인 망고를 수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망고 재배 면적은 제주를 중심으로 52.4ha에 이르며, 국내산 망고는 맛과 신선도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가족야영대회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건강강정지원센터는 이달 27~28일 모구리아영장에서 열리는 ‘1박2일 가족야영대회’ 참가자를 오

는 8일부터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80가족이다.

야영대회 첫째날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족체험존’과 ‘가족미니올림픽’에 이어 야간에는 레크

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철 별자리 관측’이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모구리 오름 산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문의 760-6488. 문미숙기자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접수

제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신

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보조기기 품목은 7월부터 신청 가능한 품목이 확대(안전손잡이·전동침대 품목 추가)돼 총 30종의 보조기기를 장애유형에 따라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자격기준 검토,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교부 결정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2018년 19종, 198개의 보조기기를 172명에게 지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완효적 질소비 효과

선충 밀도의 저하

토양소독 효과

유기물의 부숙 촉진

식효효과

토양의 비옥화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잡초의 경감

가축의 기생충 방제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탄비료

관련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마늘·양파·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능가가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리

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밀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 비 : 히토락F + 복비
- 비 대 : 히토락F

※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양배추

○ **묘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지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

○ **브이(V)패스 : 500ml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 · P 010-2633-5349